

# 추신수, 43경기 연속 출루 '대기록'

휴스턴전 지명타자 선발 4타석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2볼넷  
 日 스키치로 보유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 출루 기록과 '타이'

‘추추 트레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43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4타석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2볼넷을 기록했다.

이날 추신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43경기 연속 출루로 스키치 이치로가 보유한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 연속 경기 출루 기록과 타이틀을 이었다.

추신수는 구단 신기록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다. 텍사스의 최장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은 홀리오 프랑코가 1993년 기록한 46경기다. 1995년 44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한 오리스



닉슨이 역대 2위에 올라있다. 현역 선수 최장 연속 출루는 조이 보토(신시내티 레즈)와 알버트 푸홀스(LA 에인절스)가 보유한 48경기다. 휴스턴 선발 댈러스 카이클을 상 뉴시스

대한 추신수는 1회말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추신수는 1-5로 끌려가던 3회 1사 2루에서 카이클을 상대로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냈다.

추신수는 5회 2사 3루에서 카이클의 바깥쪽 낮은 슬라이더를 밀어쳐 3-유간을 빠지는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2-5로 뒤진 8회 선두타자로 나온 추신수는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냈다. 이후 추신수는 투그네드 오도어의 내야땅볼 때 홈을 밟아 추격 점수를 뽑았다. 시즌 50득점째를 올렸다.

추신수는 9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내야안타를 만들어냈다. 추신수의 짚뱀은 투구가 상대 2루수에 걸렸지만 송구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안타로 기록됐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86(318타수 91안타)으로 끌어 올렸고, 시즌 40타점, 56볼넷을 기록했다.

텍사스는 3-5로 패했다. 텍사스는 2연패를 당했다.

## 대한축구협회, 스콜라리 접촉설 부인

現 신태용 계약 연장 vs 새감독 영입 두고 고심 중

대한축구협회가 루이스 스킨라(70·브라질) 전 브라질 대표팀 감독과의 접촉설을 부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일각에서 제기된 스킨라리 감독 접촉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언론 글로보에스포르테는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한 한국이 스킨라리 감독과 접촉하고 있다. 조만간 스킨라리 감독에게 공식 영입 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콜라리 감독은 국가대표팀, 클럽 등에서 좋은 경력을 남긴 명망 높은 지도자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었고 200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4)에서 포르투갈의 준우승을 지휘했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다시 브라질을 이끌었지만 4강에서 독일에 1-7로 대패한 뒤 물러났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스킨라리 감독 뿐 아니라 어떤 감독과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의 계약 연장과 새 감독 영입을 두



고 고심 중이다. 신 감독의 계약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현재로서는 새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길 공산이 크다. 신 감독이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독일과 맞붙은 이번을 연출했지만 앞선 두 경기 완패로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실속 없는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월드컵 이후 처음 개최되는 5일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 축구 관계자는 “누굴 뽑겠다. 신 감독과 재계약을 하겠다. 확실한 결정이 날 확률은 낮지만 어떤 식으로든 신 감독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요금 확정...평균 36000원 수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개 폐회식과 각 종목별 입장권 가격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조직위는 “그 동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과거 판매 사례와 국내 메가 이벤트 등을 토대로 시장조사와 함께 가격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국제수영연맹(FINA)과 협의를 통해 국내외 일반대중 누구나 부담 없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은 개 폐회식과 각 종목별 경기에서 모두 45만7000

매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80%는 국내에서, 20%는 해외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판매수입은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 폐회식을 포함한 전체 종목의 평균가격은 3만6000원으로 이전 대회인 2017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와 비슷하거나 일부 종목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수준이다.

수영대회의 인기 종목인 경영·다이빙·아티스틱스위밍의 예선전 B석은 1만원, 결승전 S석은 7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 최대 이벤트인 개회식과 폐회식의 입

장권 가격은 2만원부터 15만원까지로 이전에 개최된 다른 국가 대회와 비슷하게 책정했다.

특히 나눔과 배려 차원에서 할인정책을 대폭 적용했다.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1~6급), 65세 이상 경로자는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은 40%의 할인을 적용 받는다. 또한 20인 이상 단체는 개 폐회식 10%, 일반경기 30%의 할인을 받아 대회를 관람할 수 있으며, 3차례 가장 진행될 조기에 예매의 경우 차수별로 최대 1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서은홍 기자

## 일본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에

‘독일 출신 명장’ 클린스만 유력

독일 출신의 명장 위르겐 클린스만(54) 감독이 일본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포츠전문매체 스포니치는 “독일 대표팀을 이끌었던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고 4일 전했다.

이 매체는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미 불발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일 로 예정된 기술위원회를 거쳐 내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200만 유로(약 28억원)의 연봉을 제시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설 명도 걸렸었다.

독일이 배출한 세계적인 공격수 중 한 명인 클린스만 감독은 1990 이탈리아월드컵 우승 멤버로 활약했다. 1994 미국월드컵 한국전에서는 감각적인 터닝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내 국내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은퇴 후인 2006 독일월드컵에서는 자국대표팀을 이끌고 3위를 차지했고,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는 미국대표팀의 16강행을 지휘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감독 경험도 있다.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할 경우 2018 러시아월드컵 사령탑인 니시노 아키라 감독은 자연스럽게 사퇴 수순을 밟게 된다.

니시노 감독은 폴란드·세네갈을 제치고 16강 무대를 밟았지만, 한 명이 퇴장 당한 콜롬비아를 상대로 거둔 것이 유일한 승리였다. 벨기에와의 16강전에서는 2-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다.

뉴시스

## 태극전사 이용·주세종·윤영선·문선민 “K리그에서 만나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K리그 재개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용(전북 현대 모터스), 주세종(아산무궁화FC), 문선민(인천 유나이티드FC), 윤영선(성남FC) K리그1(1부리그)은 오는 7월 15라운드를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가 웃게 만든 선수들이 K리그에서 기세를 몰아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K리그 재개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K리그 소속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불러 러시아의 감동을 리그 흥행성공으로 잇겠다는 의도다.

행사에 참석한 이용(전북), 주세종(아산), 윤영선(성남), 문선민(인천)은 월드컵 뒷이야기로 분위기를 달궜다. 독일전에서 중요 부위를 맞아

고통스러워한 이용은 “축구를 하면서 여러 번 그 부위를 맞았다. (공을 찬) 토니 크로스의 힙과 슈

비난과 질타를 받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 (정)현수와 (김)민우는 핸드폰에

있는 포털사이트 어플과 SNS를 모두 삭제했다더라.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주세종은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를 제치고 손흥민(토트넘)에게 정확한 패스를 배달한 순간을 회상했다. “은퇴

할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골키퍼의 공을 뺏어 어시스트를 하진 못할 것이다. 뜻깊은 순간이었다.”

1. 2차전까지 벤치를 지키다가 독일전에서 선발 센터백으로 활약한 윤영선은 골키퍼 조현우(대구)와 동료들에게 고마워했다. “조현우가 없었다면 이번 대회에서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었다. 선수들 모두 합심해 앞에서 많이 뛰어서 현우도 힘을 얻어 잘 막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쉽게 잡하기 어려운 비화들을 소개하던 선수들은 한 목소리로 K리그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전했다. K리그와 K리그는 다가올 주말 재개된다.

문선민은 “(월드컵에서는) 기회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못 보여줘 아쉬웠다. K리그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선민과 이용은 당일 경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월드컵 기간 끈끈한 우정을 쌓았지만 소속팀의 승리 앞에서 양보란 없다.

문선민은 “용 형은 단점이 없다. 용 형이 없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이용은 “선민은 저절적이고 스피드가 빠르다. 반칙을 하지 않으면서 강하게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내 선수들은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보다 체계적인 접근으로 K리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멀리 바서는 구단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선수들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팬들을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내 아들 이강인 스페인으로

귀화한다고? 그럴 일 없다”

아버지가 직접 밝혀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17·발렌시아)이 스페인축구협회로부터 귀화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강인 측은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3일 “이강인의 아버지와 스마트폰 메시지로 연락을 했다. 귀화를 고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2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지역신문 ‘수페르데포르테’는 “스페인축구협회가 이강인의 귀화를 원하고 있다. 3년 전부터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내년 6월이 지나면 스페인 거주 8년째로 귀화 조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찌감치 이강인의 기량을 눈여겨 본 스페인



축구 협회가 그를 대표팀에 발탁하기 위해 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강인의 아버지가 직접 귀화의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잦아들 전망이다.

이강인은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의 알레빈C에 입단했다. 어린 나이에 성인팀인 발렌시아에 이름을 올리는 등 꾸준한 성장세다.

5월 프랑스 툴루즈에서는 20세 이하(U-20) 대표팀 선배들과 호흡을 맞췄다. 형들보다 세 살이나 어렸지만 민첩 활약을 선보였다.